

역사·추억 깃든 ‘무등산장’ 활용 방안 찾는다

(광주 舊 무등산관광호텔)

광주시 북구 '광주 舊 무등산관광호텔' 보존·관리 계획 수립 착수

정부 수립 후 지은 지방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남아 1960년대 신혼여행지...5·18 땀 대학생들 피신한 곳 이달 내 연구 용역 발주 마무리...10월 최종 보고회

지역민의 삶과 애환이 오롯이 서려있는 '광주 구 (舊) 무등산관광호텔' (일명 무등산장호텔·북구 금곡동 산 3-1)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다.

28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광주 구 무등산관광호텔'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건립된 지방 관광호텔로 개항기 이후 건립된 호텔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무등산장호텔은 지난해 3월 역사적 건축물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 776호'로 지정 받았다.

무등산 관광개발의 역사이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건축물로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재 특성과 주변환경, 관계법령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추후 보수 정비 등을 위해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정밀한 실측·측량을 해 기록으로 남기는 기록화 사업도 진행한다.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환경을 기본으로 토지이용

계획 등 문화재 여건을 분석하고, 정비의 기본원칙과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안전관리 방안까지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959년 문을 연 무등산장호텔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앙정부에서 외화벌이 등을 이유로 실시한 본격적인 관광진흥 정책의 산물이다.

당시 교통부는 지방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해 무등산·대구·서귀포·설악산 등에 지방관광호텔을 지었다. 무등산개발추진위원회의 노력과 도로가 개통돼 있다는 점도 무등산장호텔이 들어설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다.

이후 타 지역의 지방관광호텔은 재개발·재건축으로 하나씩 사라졌지만, 무등산장호텔은 교통 등 열악한 입지가 오히려 '잠정'이 돼 영업을 지속했고 큰 훼손 없이 현존할 수 있었다.

또 도심과의 지리적으로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피신해 시민군 및 학생들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도모하게 된 역사적인 장소로 연관성도 생기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에서 지은 지방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광주 구 무등산관광호텔. 1962년 본관(왼쪽·국가기록원 사진)과 현재의 모습. (광주시 북구 제공)



본관(358㎡)·별관가동(107㎡)·나동(107㎡) 등 3개의 동으로 이뤄진 무등산장호텔은 무등산의 상봉 아래 원효계곡 상류에 자리하고 있다.

무등산의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피서지로 인기를 얻었다. 1960년~1970년대에는 신혼여행지로도 각광을 받았다. 주변 식당들도 호황을 누렸고 각종 계모임과 등반모임, 송년회 장소로 애용되기도 했다.

1959년 완공 후 같은 해 10월 7일 광주시로 경영

권이 넘어갔다가 1963년 한국관광공사를 거쳐 1966년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김남중 대표가 인수해 시설을 개설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경영난에 빠지게 되고 1999년 원효사에 운영권이 양도됐다. 이후 2012년 무등산권문화회(가장립대 이 곳) 숲문화학교로 탈바꿈하게 되었지만, 시설물에 대한 특별한 운영 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구는 이달 내 해당 연구용역 발주를 마무리 하

고, 오는 10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문화재청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북구 담당자는 "무등산장호텔은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서구식 목조건축의 표본으로 건축사적 가치도 높지만, 지역민들의 추억과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가능한 활용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

전남의대 졸업...지방대 출신 최초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에 이필수(60·의협 부회장, 전남도의사회장·사진) 후보가 당선됐다.

이필수의 협 당선인은 지난 26일 실시한 의협 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2만 3658표 중 1만 2431표(득표율 52.54%)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필수 후보는 전남대의과대학 출신으로, 의협 역사상 최초의 지방대 출신 회장이 됐다. 의협회

장직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까지, 3년 간이다.

이 당선인은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3가지 과업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회원 권의 보호, 의정협상, 투쟁과 관련한 기조를 밝혔다. 먼저 회원 권의보호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존중해, 코로나19사태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원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1962년생으로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마산고려병원(삼성창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나주시의사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의사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의협에서는 2016년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꽃길 보고 치매안심센터 찾아 오세요”

광주 서구 안내 꽃길 조성

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센터로 향하는 골목길 전신주를 활용해 안내 꽃길을 조성했다.

28일 서구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쌍촌동 주택 밀집 지역에 있어 갈림길과 골목길이 많아 이용하려는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이 찾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센터 직원들 역시 전화 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센터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골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안내 꽃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센터로 접근하는 주요 도로 세 곳에 도로별로 파랑, 보라, 주황 등 상징적인 색을 부여하고 전신주에 해당 색을 칠했다.

파랑길과 보라길, 주황길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센터 방문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해바라기와 장미, 튜립 등 색상이 뚜렷하고 친숙한 꽃을 디자인해 도로 환경 개선 효과까지 더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성인 4명 중 1명 “학폭 피해 당했다”

알바콜, 5224명 설문 ‘가해자 엄중 처벌’ 한목소리

성인남녀 4명 중 1명은 '학폭(학교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다수는 '학폭 가해자 엄중처벌' 및 '징계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르바이트 구직앱 알바콜이 여론조사 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총 5244명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성인남녀 응답자 4명 중 1명

(24.3%)은 본인이 '실제 학교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이 학교폭력 경험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항목(중복선택)으로는 신체적 피해(55.2%), 경제적 피해(21.4%)보다 정신적 피해(87.3%)가 압도적이었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자는 대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 사실을 밝히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 중 51.1%, 절반 이상이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응답자들은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시나요?'라는 질문에 55.7%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했고, 33.5%가 '다소 심각한 편이다'고 대답해 총 89.2%가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학폭 의혹을 받는 연예인의 업계 퇴출, 출연자 교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56.1%)은 '앞선 사례가 학교폭력 심각성 인식과 근절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시교육청, 지난해 학교회계 집행률 98.1% 달성

광주교육청이 지난해 학교회계 집행률 98.1%를 달성해 기존 목표치 97%를 넘어섰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학교회계 집행률이 목표치를 넘었고 세입추계 정확도는 99.9%로 전년도 대비 0.2%p 상승해 학교회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 동안 이월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사업 목적사업비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집행률이 95.0%에서 97.8%로 2.8%로 증가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회계 집행률 98%를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집행 중간점검(예비결산) 실시를 통한 적기집행 유도 ▲재정적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통한 학교의 자발적 참여 독려 ▲목적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반환 철저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년도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